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6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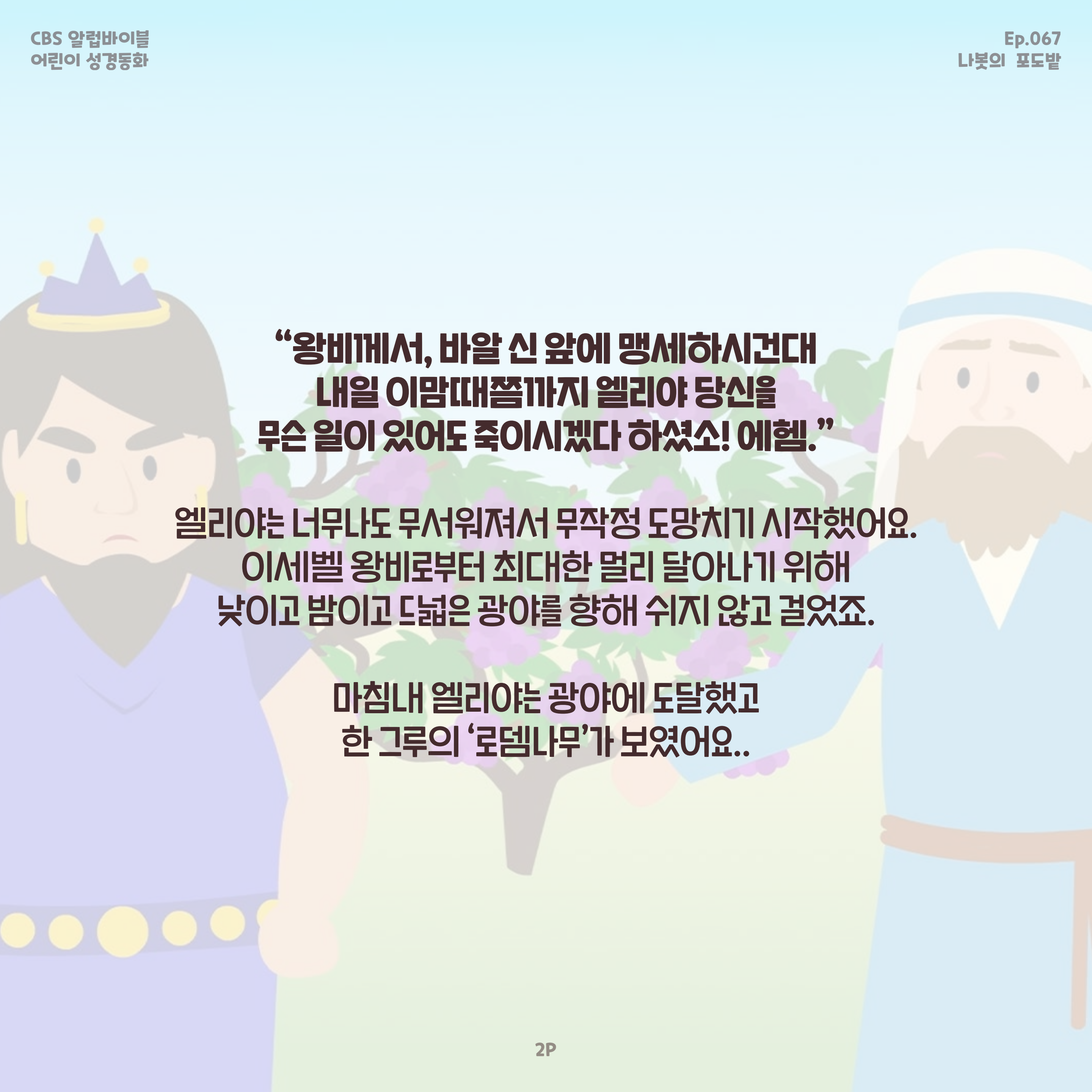
나봇의 포도밭

(열왕기상 19:1~21장, 22장)

**“아니 뭐라고요? 그래서 왕께서는, 그 건방진 자를
그냥 내버려두고 오셨단 말입니까?”**

**아합왕의 말을 전해 들은 이세벨 왕비가
씩씩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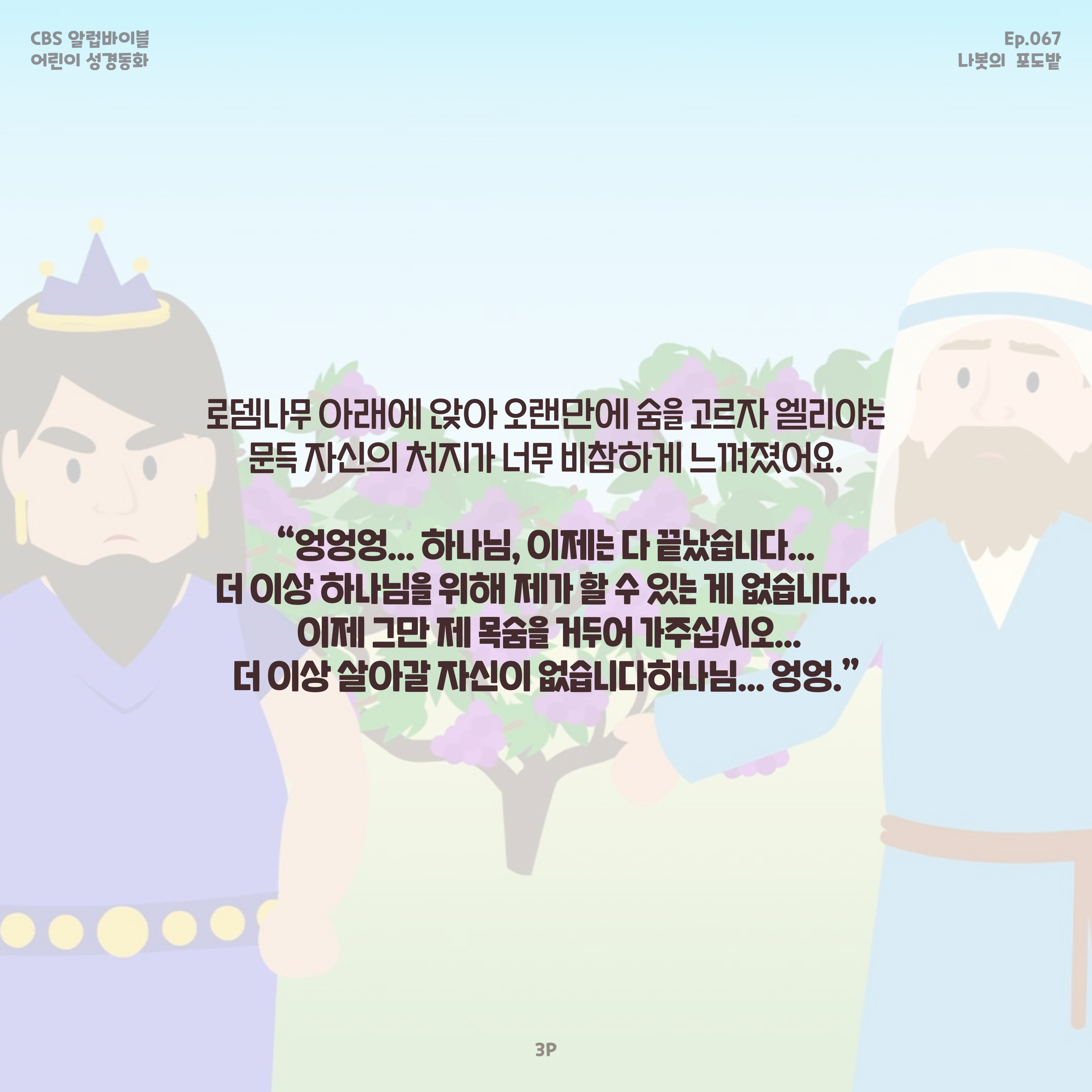
**엘리아 선지자가 자신이 섬기는 바알 신의 선지자들을
납작 눌러졌다는 소식에 너무 분하고 자존심이 상했죠.
이세벨 왕비는 신하를 보내서 엘리아에게
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어요.**



“왕비께서, 바알 신 앞에 맹세하시건대
내일 이맘때쯤까지 엘리야 당신을
무슨 일이 있어도 죽이시겠다 하셨소! 에헴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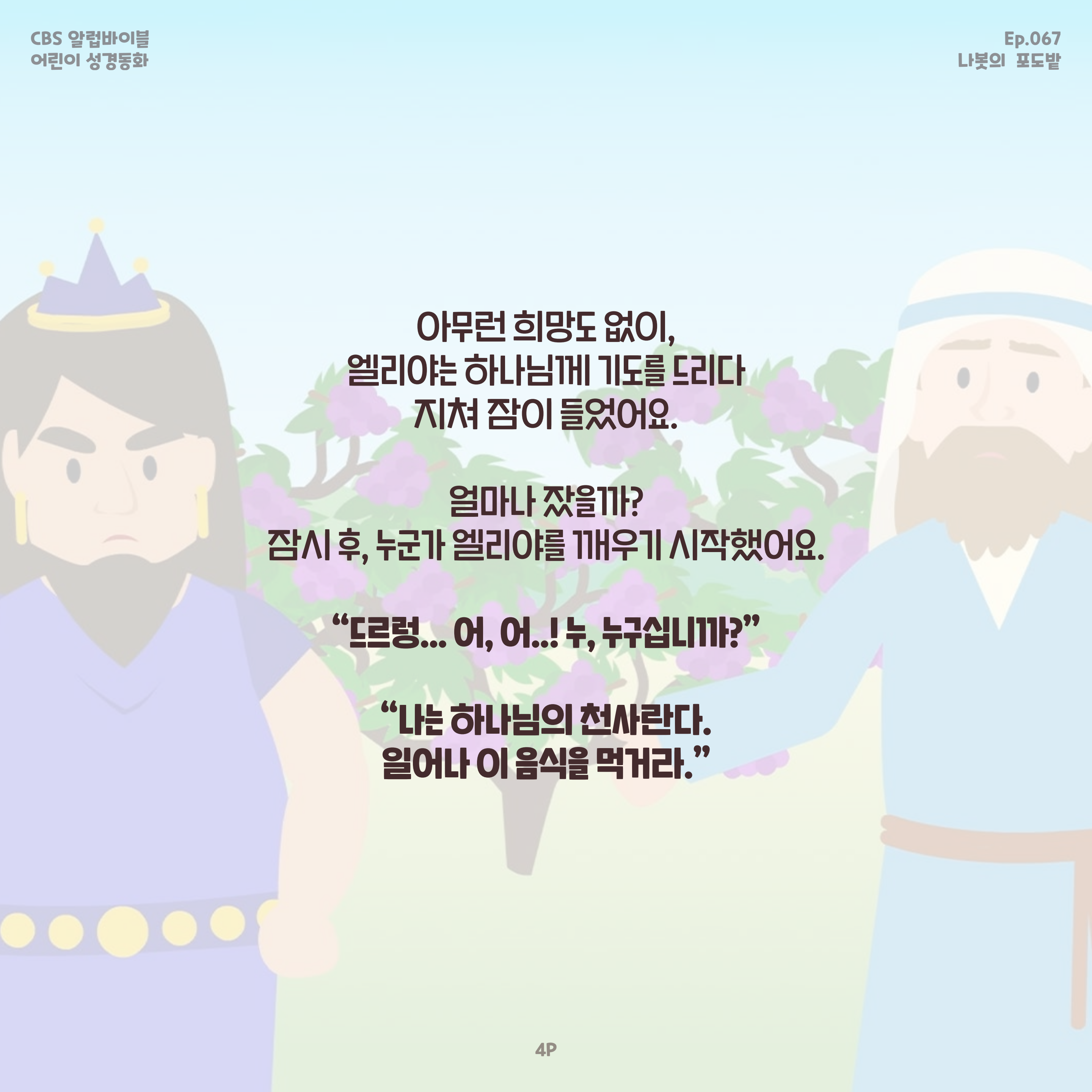
엘리야는 너무나도 무서워져서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어요.
이세벨 왕비로부터 최대한 멀리 달아나기 위해
낮이고 밤이고 드넓은 광야를 향해 쉬지 않고 걸었죠.

마침내 엘리야는 광야에 도달했고
한 그루의 ‘로뎀나무’가 보였어요..



로렘나무 아래에 앉아 오랜만에 숨을 고르자 엘리야는
문득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.

**“엉엉엉... 하나님,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...
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..
이제 그만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...
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... 엉엉.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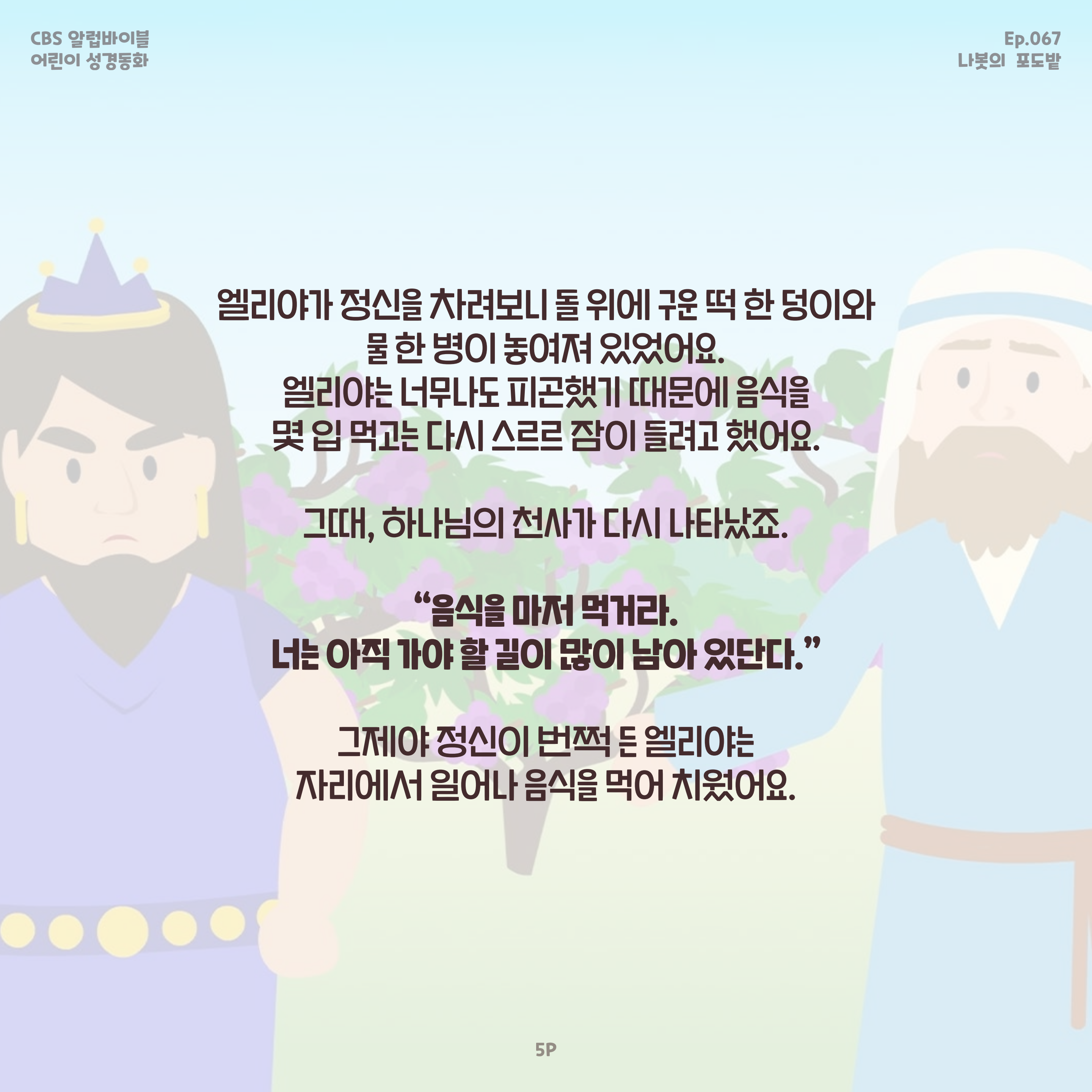


아무런 희망도 없이,
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
지쳐 잠이 들었어요.

얼마나 잤을까?
잠시 후, 누군가 엘리야를 깨우기 시작했어요.

“드르렁... 어, 어..! 누, 누구십니까?”

“나는 하나님의 천사란다.
일어나 이 음식을 먹거라.”

An illustration of a king and a prophet in a vineyard. The king, on the left, has a purple crown and a purple robe with a yellow belt. He has a stern expression. The prophet, on the right, has a long white beard and a blue robe. He is holding a bunch of purple grapes. In the background, there are green leaves and purple grapes on a vine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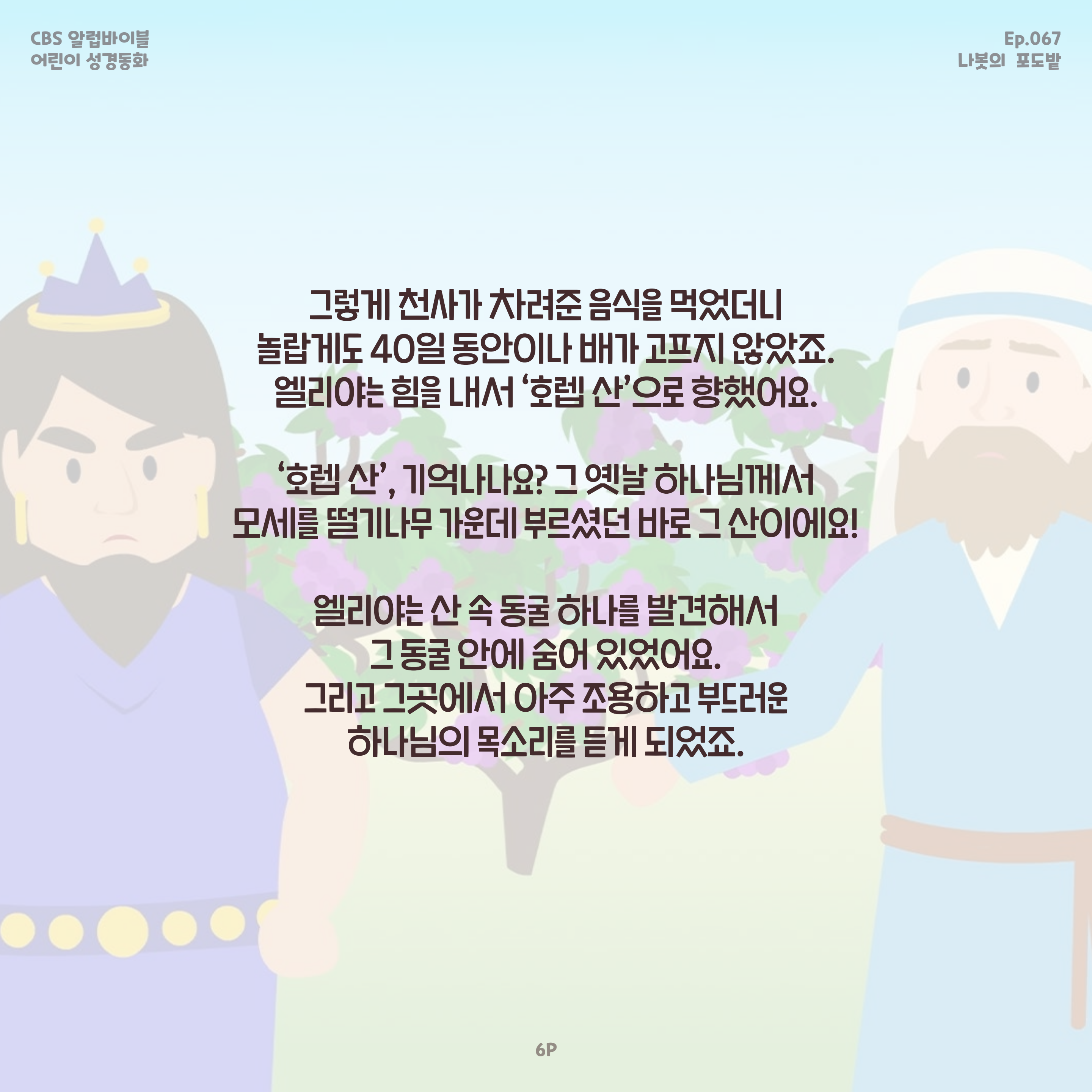
**엘리아가 정신을 차려보니 돌 위에 구운 떡 한 덩이와
물 한 병이 놓여져 있었어요.**

**엘리아는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음식을
몇 입 먹고는 다시 스르르 잠이 들려고 했어요.**

그때,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죠.

**“음식을 마저 먹거라.
너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단다.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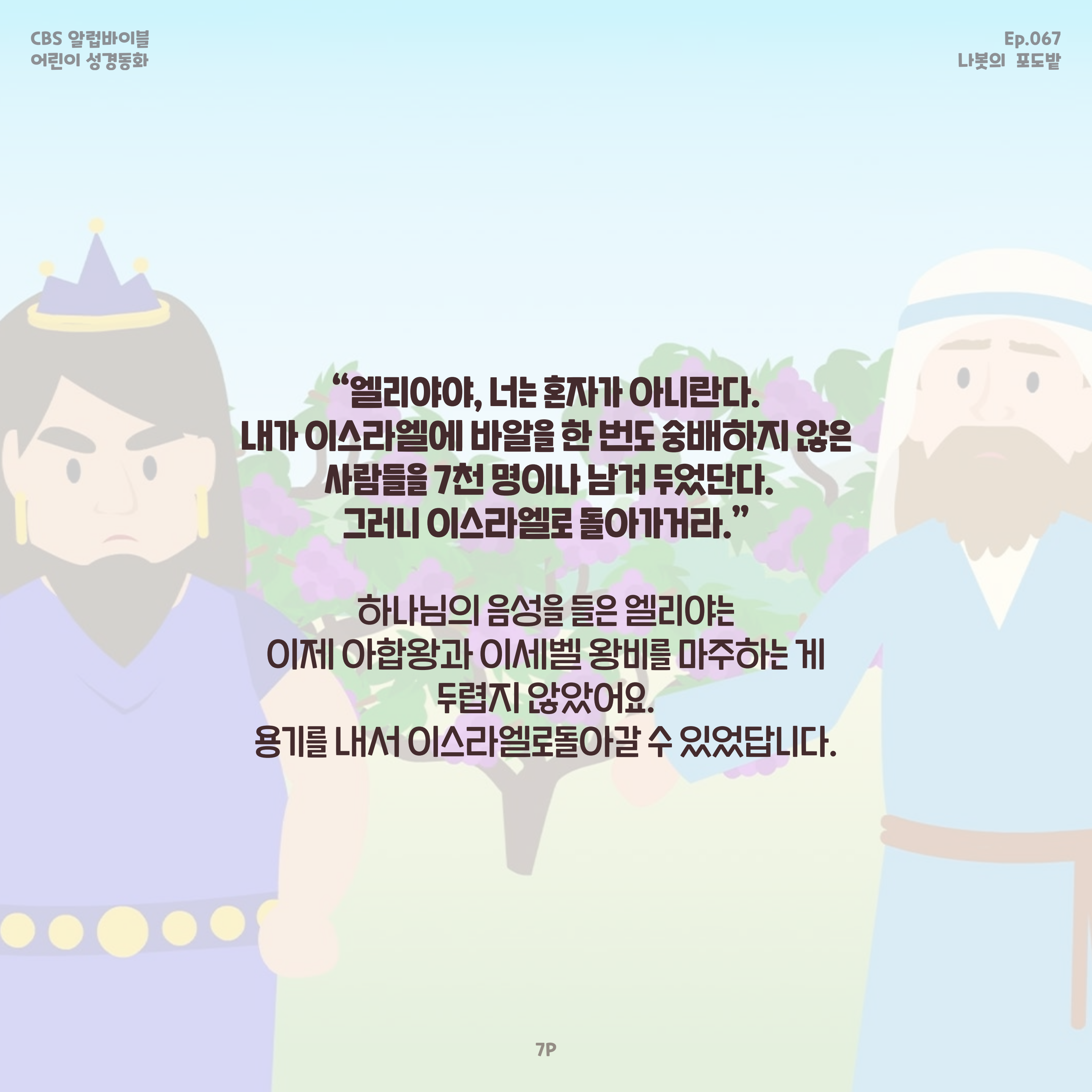
**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엘리아는
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먹어 치웠어요.**

An illustration of a king and a prophet standing in a vineyard. The king, on the left, has a stern expression, wears a purple crown with yellow dots, a purple tunic, and a purple belt with yellow circles. The prophet, on the right, has a long white beard, wears a blue headband and a blue tunic, and holds a wooden staff. They are surrounded by green grapevines with clusters of purple grapes.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sky.

그렇게 천사가 차려준 음식을 먹었더니
놀랍게도 40일 동안이나 배가 고프지 않았죠.
엘리아는 힘을 내서 ‘호렙 산’으로 향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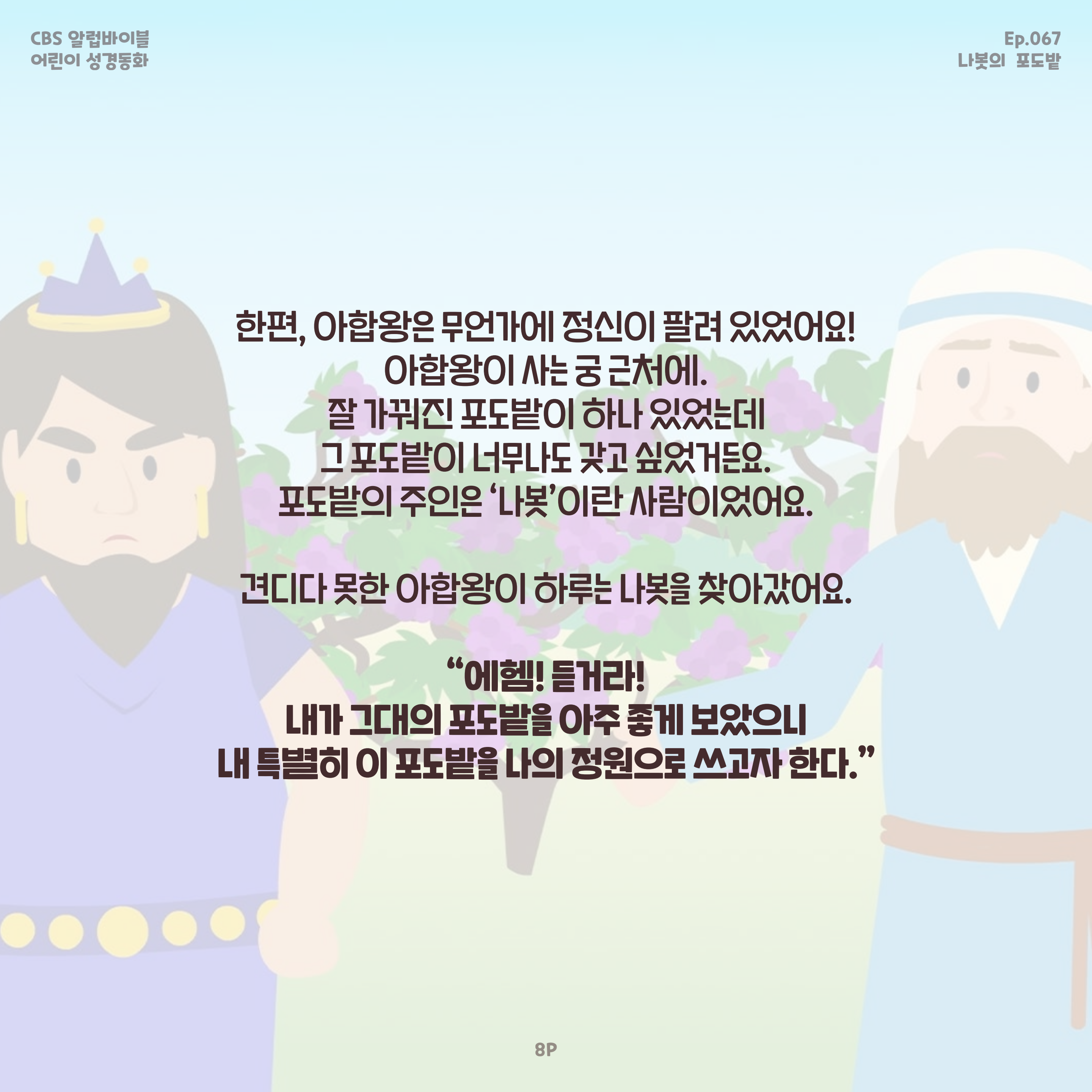
‘호렙 산’, 기억나요? 그 옛날 하나님께서
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던 바로 그 산이에요!

엘리아는 산 속 동굴 하나를 발견해서
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.
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
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.



“엘리야야,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.
내가 이스라엘에 바알을 한 번도 숭배하지 않은
사람들을 7천 명이나 남겨 두었다.
그러니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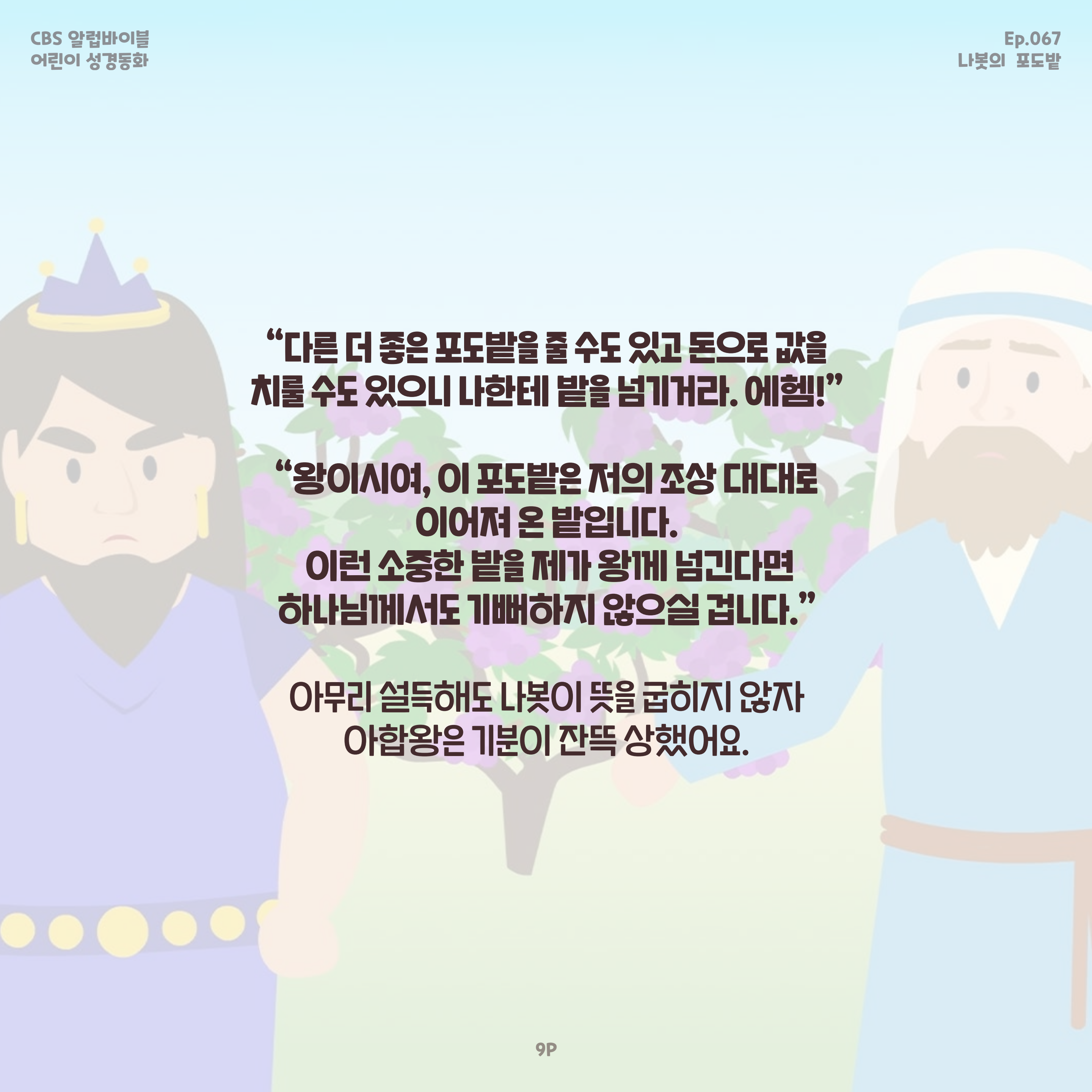
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
이제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를 마주하는 게
두렵지 않았어요.
용기를 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.



한편, 아합왕은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!
아합왕이 사는 궁 근처에.
잘 가꾸진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
그 포도밭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거든요.
포도밭의 주인은 ‘나봇’이란 사람이었어요.

견디다 못한 아합왕이 하루는 나봇을 찾아갔어요.

“에헴! 들거라!
내가 그대의 포도밭을 아주 좋게 보았으니
내 특별히 이 포도밭을 나의 정원으로 쓰고자 한다.”



**“다른 더 좋은 포도밭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값을
치를 수도 있으니 나한테 밭을 넘기거라. 에헴!”**


**“왕이시여, 이 포도밭은 저의 조상 대대로
이어져 온 밭입니다.
이런 소중한 밭을 제가 왕께 넘긴다면
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.”**

**아무리 설득해도 나봇이 뜻을 굽히지 않자
아합왕은 기분이 잔뜩 상했어요.**

**“제깃 백성 녀석이 왕인
나의 말을 거역해? 씹씹...”**

**심통이 난 아합왕은 침대에 누워 벽만 바라보았고
밥도 먹지 않고 단단히 베풀어 있었어요.
그러자 이세벨 왕비가 말을 걸었죠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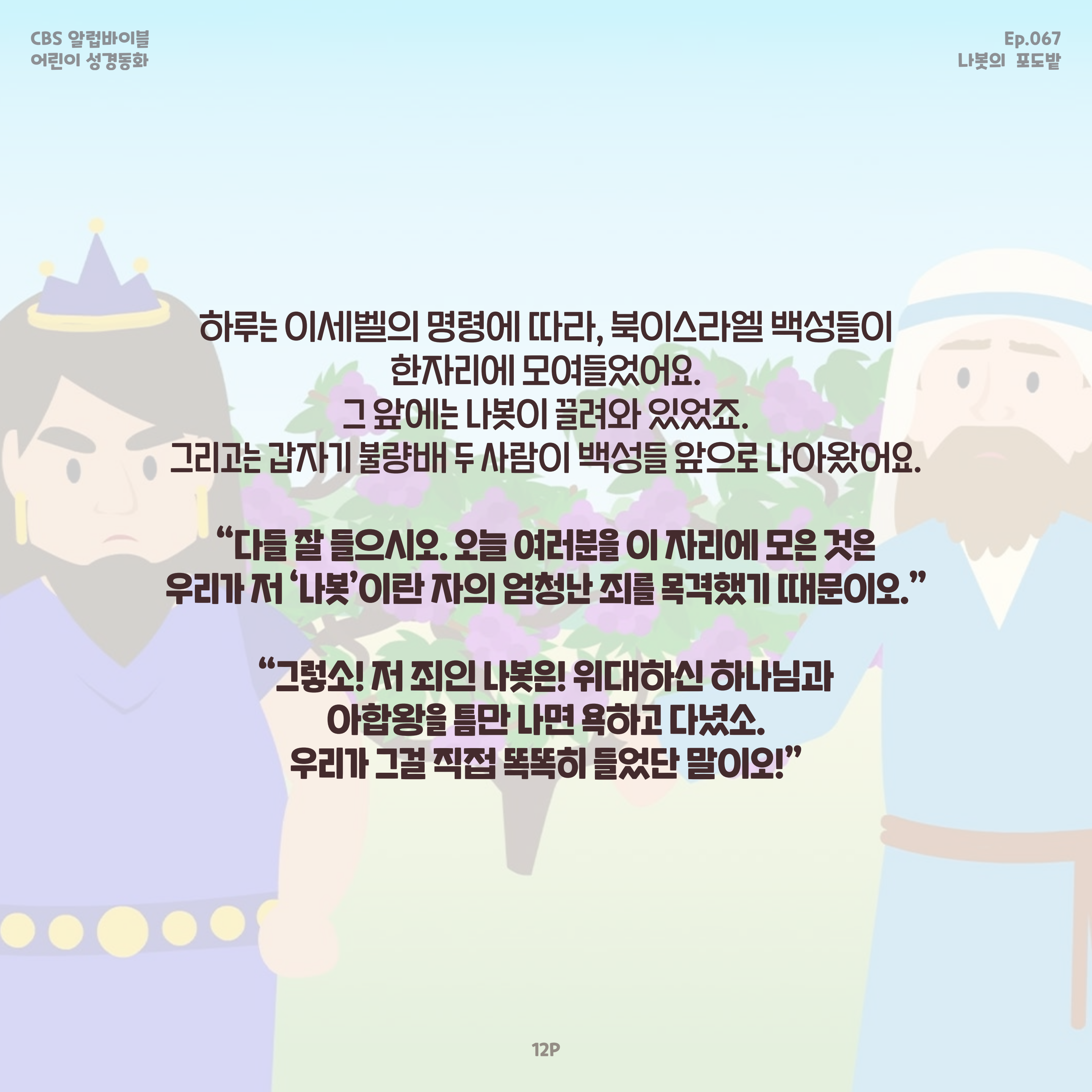
**“아니, 폐하, 대체 왜 식사도 거르고
몇 날 며칠 공해 계신 건가요?
말씀을 해주셔야,제가 뭐든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!”**



그제야 아합왕은 고개를 돌려서
나봇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일러주었어요.

“허! 고작 그 정도 일로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께서
이리 기운을 잃으셔야 되겠습니까!
걱정 마십시오. 그 포도밭을 반드시 가져다드리겠습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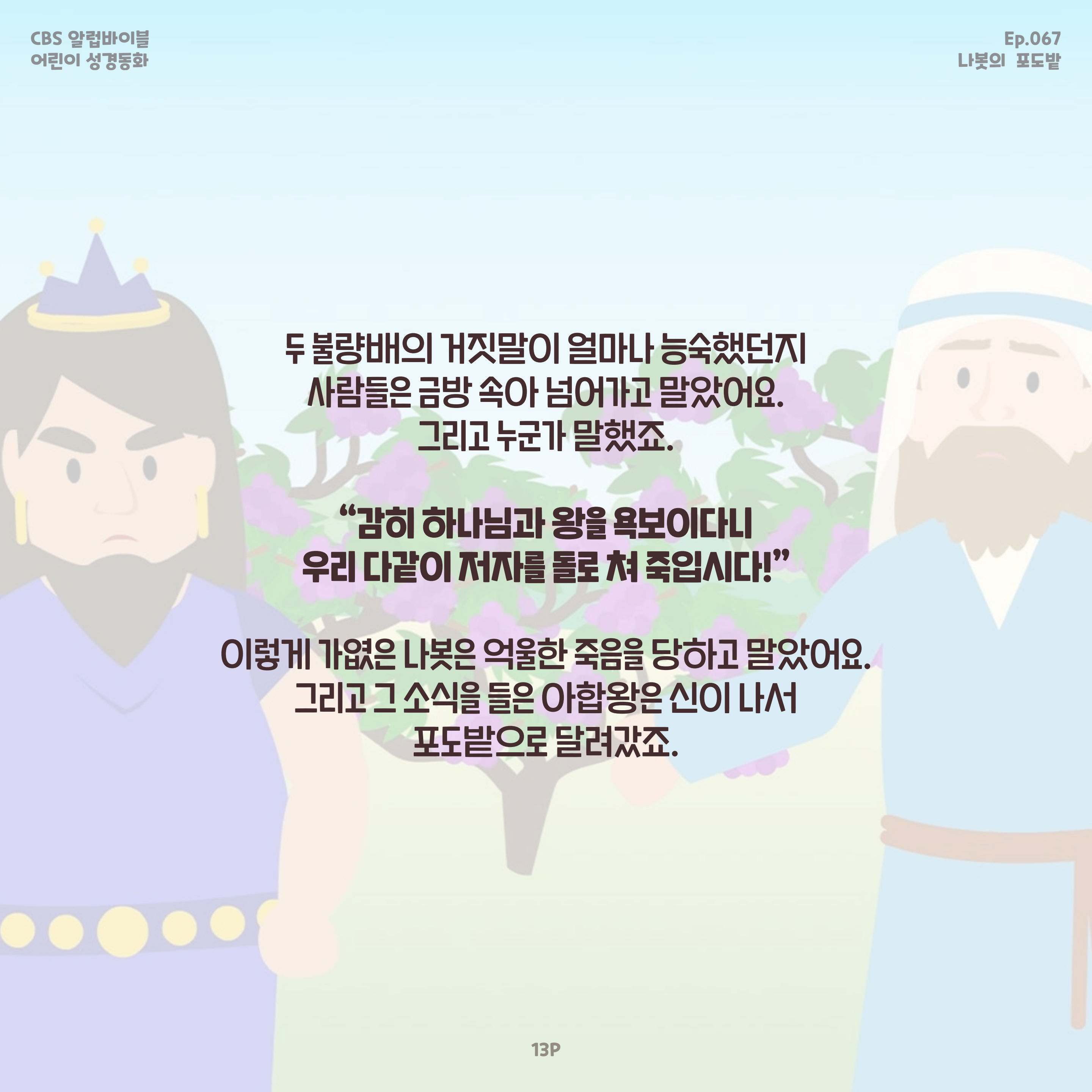
사악한 이세벨 왕비는, 사람들을 불러 모아
곧바로 계락을 세우기 시작했어요.
아주아주 끔찍한 계락이었죠.



하루는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, 북이스라엘 백성들이
한자리에 모여들었어요.
그 앞에는 나봇이 끌려와 있었죠.
그리고 갑자기 불량배 두 사람이 백성들 앞으로 나아왔어요.

**“다들 잘 들으시오.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것은
우리가 저 ‘나봇’이란 자의 엄청난 죄를 목격했기 때문이요.”**

**“그렇소! 저 죄인 나봇은! 위대하신 하나님과
아합왕을 틈만 나면 욕하고 다녔소.
우리가 그걸 직접 똑똑히 들었던 말이요!”**

The background illustration shows a king on the left wearing a purple crown and a purple robe with a yellow belt. He has a stern expression. On the right is a man with a long white beard, wearing a blue robe and a white head covering with a blue band. They are standing in a vineyard with green leaves and clusters of purple grapes. The text is overlaid in the center.

두 불량배의 거짓말이 얼마나 능숙했던지
사람들은 금방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.
그리고 누군가 말했죠.

**“감히 하나님과 왕을 욕보이다니
우리 다같이 저자를 돌로 쳐 죽임시다!”**


이렇게 가엾은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.
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합왕은 신이 나서
포도밭으로 달려갔죠.

**“히히히!
새 포도밭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?”**

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
밭에 도착했을 때! 아합왕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!
왜냐면 눈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었거든요.

**“어서 오십시오.
포도밭을 차지하게 돼서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.
하나님께서서는 나봇의 죽음에 왕의 책임이
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.
분명히 말씀드리죠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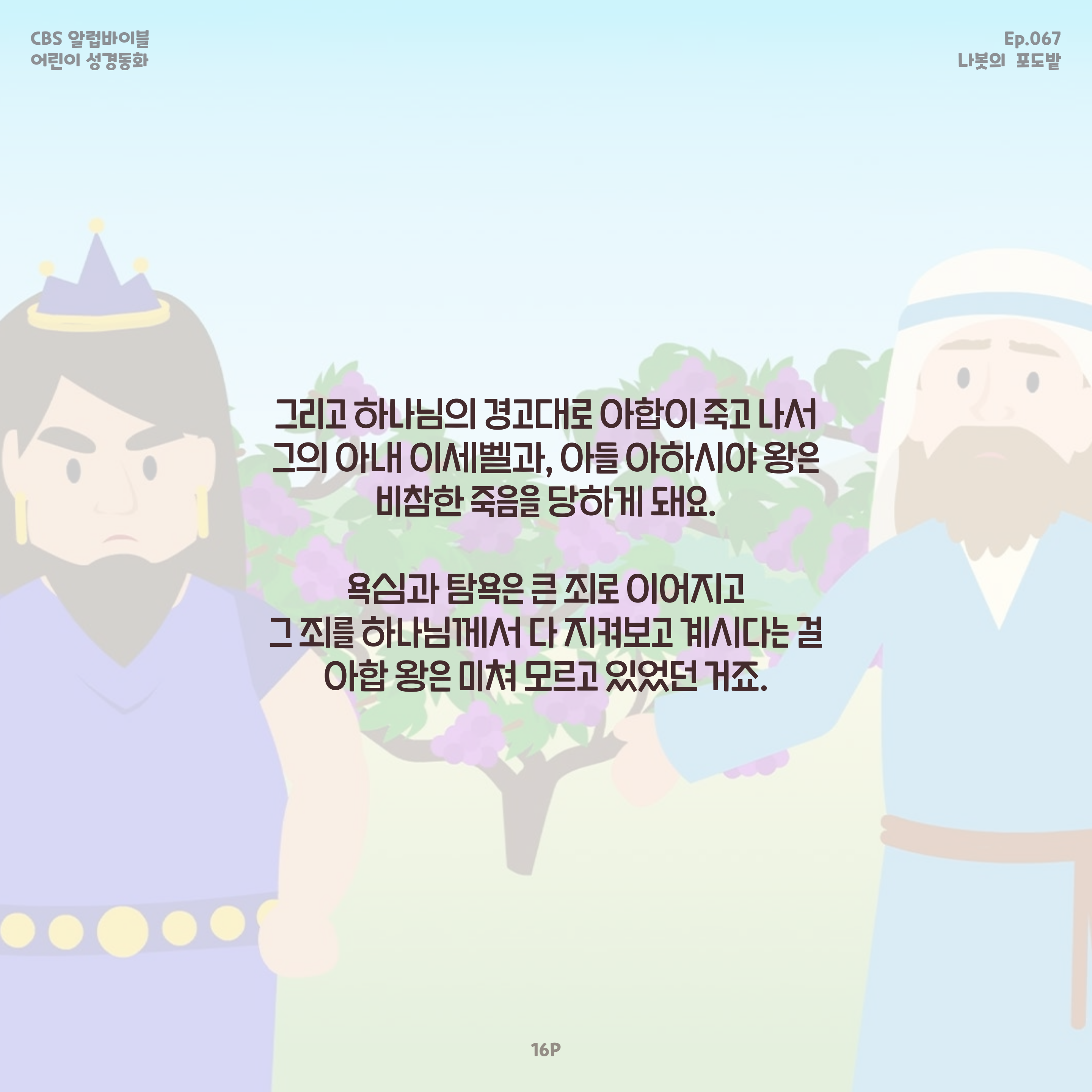
**이 일로 인해서 왕과 왕의 가족에게
앞으로 끔찍한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!”**



아합왕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졌어요.
전에도 엘리야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
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끔찍한 경고가
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.

새 포도밭이 생겼지만
이제 아합왕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.

왕궁에서도 베풀을 입은 채로 있었고
끼니도 거른 채 슬퍼하는 날이 많아졌죠.



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합이 죽고 나서
그의 아내 이세벨과, 아들 아하시야 왕은
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.

욕심과 탐욕은 큰 죄로 이어지고
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
아합 왕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거죠.